

교회의 정통으로 돌아옴

(토요일 — 오전 2부 집회)

메시지 8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성경: 계 3:14-22

I. ‘라오디게아’는 헬라어로 ‘사람들이나 평신도들의 의견, 판단’을 의미한다 — 계 3:14.

- A. 일단 빌라델비아가 타락하면 라오디게아가 된다.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주어진 유일한 경고는 그들이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그들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라는 것이다.
1. 그들은 오랫동안 동일한 일들을 하는 것에 대해 지루해하지 말아야 하며, 바뀌기를 구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분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이러한 동일한 일들을 한 후에, 새로운 무언가를 하려고 꾀하지 말아야 한다 — 계 3:8, 11.
 2. 그들이 한 일은 옳았으며 주님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계속해서 그 일을 해야 한다. 그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야 하며, 떠나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
- B. 라오디게아는 일그러진 빌라델비아이다. 형제 사랑이 사라질 때, 다수의 의견이 일반적으로 인정된 의견이 된다. 다수가 찬성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1. 형제 사랑을 잃어버릴 때, 몸의 관계와 의식도 잃어버린다.
 2. 또한 생명의 교통이 끊어질 때 오직 사람들의 의견들만 남게 된다.

II.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 네가 이렇게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기 때문에, 나는 너를 나의 입에서 토하여 낼 것이다. 네가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별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 계 3:15-17.

- A. 주님께서 보시기에 라오디게아의 특징은 미지근함과 영적 교만이다.
1. 영적 교만은 역사(歷史)로부터 비롯된다. 어떤 사람은 한때 풍성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풍성하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그들의 이전 생활은 잃어버렸다.
 2. 주님은 한때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셨고, 그들은 그들의 역사를 기억하지만 지금은 그 실재를 잃어버렸다.
 3. 그들은 한때 그들이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지만, 지금 그들은 가련하고 눈멀었다.
- B. 만일 우리가 계속해서 빌라델비아의 길에 머물고 라오디게아가 되는 것을 피하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겸손히 낮추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 마 5:3, 19:23-24, 사 57:15.
1. “사랑은 자기를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 고전 13:4하, 8상.
 2.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전혀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 고전 4:7, 비교 2:12, 요 3:27, 뵤전 4:10.

3. 주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이 풍성하다는 것을 의식하지 않을 것이다.
- C.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면서도 실지로는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뜨겁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 라오디게아는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만, 그 무엇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없다. 라오디게아는 이전의 자신의 영광은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자신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린다. 이전에 그것은 빌라델비아였지만, 지금은 라오디게아이다.
- D. 누군가가 교만하게 되고, 생명의 길을 버리고, 실재를 간과하면서 자신의 역사와 풍성함을 회상한다면, 남아 있는 유일한 것은 많은 사람들의 의견일 것이다.
1.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에는 오직 토론과 여론 조사만 있을 수 있다. 그것은 민주 사회처럼 보이지만, 몸의 관계와 유사한 것은 전혀 없다.
 2. 우리가 몸의 제한과 권위와 생명을 모른다면, 형제 사랑을 모르는 것이다.
- E. 주님을 따르는 이들은 교만하지 않다. 주님은 교만한 사람들을 그분의 입에서 토하여 내실 것이다.
1.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기를 바란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경고이다. 우리는 말을 할 때 결코 교만하지 말아야 한다.
 2. 우리가 교만한 말을 삼갈 수 있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지속적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오직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만이 그들 자신을 풍성하다고 여기지 않을 것이다. 오직 그러한 사람들만이 교만하지 않을 것이다.
- F. 주님과 교회를 위해 뜨겁다는 것은 직역하면 ‘끓어오르는 것’을 의미한다. 미지근하기 때문에 주님의 입에서 토하여 내쳐지는 것은 주님께 거절되는 것이고, 교회에게 주어진 주님의 온 존재에 대한 누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 G. 주님께서 보시기에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다음의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진다.
1. 이 교회는 비참한데, 왜냐하면 공허한 교리적인 지식이 풍성한 것을 자랑하지만, 실지로 그리스도의 풍성을 체험하는 면에서는 몹시 빈약하기 때문이다.
 2. 이 교회는 가련한데, 왜냐하면 벌거벗고 눈멀고 수치와 어둠이 가득하기 때문이다.
 3. 이 교회는 가난한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의 면과 하나님의 경륜의 영적인 실재 면에서 가난하기 때문이다.
 4. 이 교회는 눈멀었는데,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인 일들을 보는 참된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5. 이 교회는 벌거벗었는데, 왜냐하면 그 교회가 매일의 행함에서 주관적인 의, 곧 두 번째 옷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지도 않고 또 그리스도를 살지도 않기 때문이다 — 시 45:1-2, 9, 13-14, 마 22:11-12, 빌 3:8-9, 계 19:8.

III. “그래서 나는 너에게 권면한다. 불에 제련한 금을 나에게서 사서 풍성하게 되도록 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가 보이지 않도록 하며, 안약을 사서 너의 눈에 발라서 보도록 하여라.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책망도 하고 징계도 한다. 그러니 너는 열심을 내고 회개를 하여라.” — 계 3:18-19.

- A. 성경에서, 작용하며 일하는 우리의 믿음(갈 5:6)은 금에 비유되고(벧전 1:7),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 곧 그리스도의 신성은 금으로 예표된다(출 25:11).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한다(벧후 1:1, 4-5).

1.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에게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에 속한 지식은 있지만, 그리스도의 신성한 요소에 참여하게 하는 살아 있는 믿음은 그다지 많지 않다.
 2. 이 교회는 금인 믿음을 얻기 위해 불 같은 시험을 통하여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데, 이것은 그 교회가 참된 금, 곧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 요소이신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참여하기 위한 것이다.
 3. 그럴 때에 그 교회는 금으로 된 새 예루살렘(계 21:18)을 건축하는 순수한 금등잔대(계 1:20)가 될 수 있다.
- B. 흰옷은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러한 행위는 교회가 살아 낸 주님 자신이며,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가 자신의 벌거벗은 것을 덮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 C. 그들의 눈에 발라야 하는 안약은 기름 바르시는 그 영(요일 2:27)임이 분명하며, 이 영은 생명 주시는 영(고전 15:45하)이신 주님 자신이다.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는 자신의 눈먼 것을 치료하기 위해 이러한 안약이 필요하다(비교 욥 42:5-6).
1. 신약의 의미에서, 하나님을 보는 것은 하나님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하나님을 얻는 것은 요소와 생명과 본성의 방면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여, 하나님으로 조성되는 것이다 — 비교 마 5:8.
 2.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데(고후 3:16, 18, 비교 요일 3:2),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분의 요소를 우리 안으로 받아들이고, 우리의 낡은 요소가 배출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신진대사적인 과정이 변화이다(롬 12:2).
 3. 하나님을 보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인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방면에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권위 방면에서 하나님을 대표하기 위한 것이다.
 4.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을 더욱 혐오하고 더욱 부인하게 된다 — 욥 42:5-6, 마 16:24, 눅 9:23, 14:26.
- D. 죽은 공허한 지식과 교리적인 의식은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를 미지근하게 만들었다. 이 교회는 다시 그리스도의 실재를 누릴 수 있도록 미지근한 것을 회개해야 하며, 열심을 내고 끓어오르며 불타야 한다.

IV.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다.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 계 3:20.

- A. 이 문은 개인들의 마음의 문이 아니라, 교회의 문이다.
1.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은 타락한 교회 밖에 서시어 그 교회의 문을 두드리신다.
 2.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모든 문제에 대한 척도라는 한 가지 원칙을 반드시 깨닫고 붙잡아야 한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 반드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출 33:11, 14, 고후 2:10, 시 27:8, 105:4.
- B. 문은 교회의 문이지만, 이 문은 개인적인 믿는 이들이 열어야 한다.
1.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는 지식은 있지만, 주님의 임재가 없다.
 2. 주님은 교회 전체를 다루고 계시지만, 주님을 잔치로 누리기 위해 그분의 다루심을 받아들이는 것은 개인적이고도 주관적인 것이어야 한다.

- V.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계 3:21-22.
- A. 여기에서 이긴다는 것은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의 미지근한 것과 교만을 이기는 것이고, 필요한 것을 사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문을 여는 것이다. 유일한 이기는 이이신 그리스도는 모든 이기는 이들을 포함하신다.
- B.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은 이기는 이가 받는 상이 될 것이다. 이것은 이기는 이가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고 장차 올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공동 왕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리는 것이다.
- C. 우리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일곱 서신이 한 권의 책으로 쓰여 일곱 교회에게 보내어졌음을 보아야 한다. 이 서신들은 주님께서 일곱 곳의 특정한 교회들에게 각각 보내신 것이지만(계 2:1, 8, 12, 18, 3:1, 7, 14), 이 서신들은 일곱 권의 책이 아니라 한 권의 책으로 보내어졌다.
- D. 비록 일곱 서신의 내용은 다르지만, 각 서신은 동일한 결론의 말씀으로 끝맺는다. “귀가 있는 사람은 그 영계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 계 2:7, 11, 17, 29, 3:6, 13, 22.
1. 이것은 각각의 서신이 모든 교회들에게 쓰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주 예수님께 속한 모든 긍정적인 것들에 있어서 교회들은 동일해야 함을 가리킨다.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게 하신 말씀에서, 주님은 긍정적인 것들이 풍성해지도록 그것들을 추천하시고 강화하시며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다.
 2. 일곱 교회는 오직 부정적인 것들에 있어서만 비정상적으로 서로 달랐다. 주님은 부정적인 것들을 없애기 위해 그것들을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며 유죄 판결하시고 교정하셨다.
- E. 미지근한 교회가 자신의 모든 죽은 지식을 잊어버리고, 살아 계시고 불타시는 영계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이 교회는 타락한 상태에서 구출될 것이다.

사역의 말씀에서 발췌

일곱 번째 교회 — 라오디게아 교회

일곱 교회 중에서 다섯 교회는 책망을 받았고, 한 교회는 책망을 받지 않았으며, 나머지 한 교회는 완전한 칭찬을 받았다. 완전히 칭찬을 받은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이다. 두아디라 교회(로마 천주교), 사데 교회(개신교),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마지막이자 일곱 번째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도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사데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에서 나왔고 빌라델비아 교회가 사데 교회에서 나왔다면,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온 것이다. 여러분은 이것을 보았는가? 하나에서 다른 하나가 나온 것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하락으로 형성됨

오늘날의 문제는 빌라델비아 교회가 실패할 때 라오디게아 교회로 변하는 데 있다. 그러므로 결코 개신교를 라오디게아 교회로 잘못 생각하지 말라. 그렇지 않다. 개신교는 사데 교회이지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다. 오늘날 개신교는 사데 교회가 될 수 있을 뿐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라.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개신교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아니다. 그들은 사데 교회이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의 타락으로 형성된 것이다. 사데 교회는 두

아디라 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진보된 것이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데 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진보된 것이지만, 라오디게아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에서 나온 것으로 퇴보된 것이다. 이 네 교회는 모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된다.

라오디게아는 일그러진 빌라델비아요, 원래 모습에서 떠난 빌라델비아이다. 어느 날 형제 사랑을 잃을 때 즉시 군중의 의견으로 변해 버린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의 의미이다. ‘라오디게아’는 로마의 왕자 안티오쿠스가 지어 준 어느 성의 이름이다. 그는 자기 아내의 이름인 ‘라오디오스(Laodios)’에서 ‘디오스’를 제하고 ‘시아’ 혹은 ‘게아’를 더하여 ‘라오디시아(Laodicea)’ 혹은 ‘라오디게아’라고 이름을 바꾸었다. ‘라오(Lao)’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군중을 의미하고 ‘시아’ 혹은 ‘게아’는 의견을 의미한다.

빌라델비아 교회가 타락할 때 형제가 군중으로 변하고, 형제 사랑이 군중의 의견으로 변한다. 곧 사랑이 의견으로 변하는 것이다. 형제 사랑은 살아 있는 것이고 군중의 의견은 죽은 것이다. 언제든지 형제 사랑이 사라질 때 몸의 관계가 사라지게 되고, 생명의 교통을 잃을 때 남게 되는 것은 사람들의 의견뿐이다. 거기에는 주님의 의견이 없고 다수결의 원칙과 투표와 선거가 있을 따름이다. 빌라델비아가 타락할 때 곧 라오디게아로 변한다.

차지도 않고 답지도 않으며 영적인 교만을 가짐

요한계시록 3장 15절은 “내가 너의 행위를 안다.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네가 차거나 뜨겁기를 원한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다. 17절은 “내가 ‘나는 풍부하고 풍성하게 되어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네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한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다. 주님 앞에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은 바로 차지도 않고 답지도 않으면서 영적인 교만을 가지는 것이다. “나는 풍부하고”라는 말도 충분히 나쁜데, 또 나는 “풍성하게 되어”라고 말했다. 두 마디로 충분히 악한데, 또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주님의 관점은 “내가 비참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이다. 이런 영적인 교만은 어디에서 왔는가? 과거의 역사에서 온 것이다. 한동안 그들은 부자였으나, 오늘날도 여전히 부자라고 생각한다. 한때는 주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은 그 역사를 기억한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그 실재를 잃었다.

과거의 생명이 이제는 없어짐

오늘날 개신교 안에는 자신이 영적으로 부자라고 자랑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 내가 외국에서 개신교의 많은 지도자들을 만나 보고 중국의 개신교 목사들도 만나 보았지만, 그들은 한목소리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라고 말했다. 사데 교회에서는 교만한 사람을 찾을 수 없다. 오직 한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빌라델비아의 무리만이 교만하다. 그러나 그들은 오늘날에 와서 과거의 생명을 잃어버렸다. 과거의 일을 오늘날에도 기억하지만, 과거의 생명은 사라졌다! 자신이 한때는 부자요 부요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지만, 이제 가난하고 눈먼 자가 되었다. 참으로 오직 타락한 빌라델비아 교회, 즉 능력과 생명을 잃은 빌라델비아 교회만이 자신의 부요함을 자랑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배워야 함

그러므로 형제자매들이 빌라델비아의 길에 계속 머무르려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를 배워야 한다. 때로 나는 어떤 형제가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듣는다. 나도 이 말을 인정하지만, 이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주의해야 한다. 조심하지 않으면 그것은 라오디게아의 냄새를 풍기게 된다. 만일 어느 날 여러분이 “우리는 부자라 부요하여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다.”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게 된다면, 여러분은 이미 라오디게아로 떨어진 것이다!

우리에게 있는 것 중 받지 않은 것이 없다. 주위 사람들이 죽음으로 충만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생명으로 충만하다는 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주위 사람이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자신이 부자라는 의식을 갖지 말아야 한다. 주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부자라는 의식이 없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활을 베푸시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사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를 바란다. 우리가 부요하더라도 자신의 부요함을 의식하지 않기를 바란다. 참으로 모세의 얼굴에서 빛이 났지만 본인은 모르는 것이 더 좋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알게 되면 그는 라오디게아가 되고 그 결과 미지근하게 된다. 라오디게아는 모든 것을 알려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떤 것에도 열망이 없다. 그들은 명목상으로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 어떤 것을 위해서도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희생하지 않는다. 그들은 자신의 이전 영광을 기억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현재 상태는 잊어버린다. 이전에 그들은 빌라델비아였지만, 지금은 라오디게아이다.

자신을 위하여 교회의 길을 택해야 함

오늘 나는 여러분 앞에 이 네 가지 교회를 제시하겠다. 마지막 세 교회는 로마 천주교 밖으로 나오고, 이 네 교회는 모두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스스로 교회의 길을 택해야 한다. 여러분은 로마 천주교의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개신교의 사람이 될 것인가? 여러분은 로마 천주교의 하나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개신교의 술한 종파를 따를 것인가? 여러분은 빌라델비아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한동안 빌라델비아 교회였다가 오늘날 과거의 역사 안에 살면서 과거의 영광을 자랑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생명에서 떠나 있으며 실재를 중요시하지 않고 오직 과거의 역사만을 기억하며 자신의 부요함을 회상하는 사람들에게는 군중의 의견, 즉 모든 사람이 범사에 함께 상의하는 것만이 남게 될 것임을 기억하라. 이것은 민주적인 것 같으나 몸의 어떠함이 없다. 만일 여러분이 몸의 제한과 권위와 몸의 생명을 알지 못한다면, 결코 형제 사랑을 알 수 없다.

이 네 교회가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충성스럽게 머물러야 한다. 결코 호기심으로 로마 천주교는 어떤 것인가 묻지 말라. 호기심이 많은 사람은 항상 해를 입는다. 개신교의 종파를 만지지 말라. 그것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다. 성경은 개신교 운동이 전체적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었지만, 하나님께서 정죄하고 책망하시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조사하거나 물어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빌라델비아의 위치에 서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를 배워야 한다. 다만 형제의 위치에 서 있고 교만하지 말라. 결론코 로마 천주교 앞에서나 개신교 앞에서나 각 종파 앞에서 교만하지 말라. 일단 교만하면 여러분은 더 이상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이다! 언제든지 여러분이 그들 앞에서 교만할 때, 여러분은 더 이상 빌라델비아가 아니라 라오디게아인 것이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갈 것인가? 교회의 길에 있어서 형제들이 곧은길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구한다.

주님께서 정하신 교회의 길은 바로 빌라델비아이다. 내가 천만 가지의 근거를 댈 수는 없지만, 수백 가지의 근거를 들어 하나님의 좋은 자녀들이 이와 같은 말을 하고 있고 이러한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개신교 전체의 문제에 대한 의문이 풀렸다면 자세한 것은 묻지 말라. 로마 천주교 전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자세한 것에 대하여는 묻지 말라. 중국에는 스물한 개의 천주교 지회(支會)가 있다. 여러분은 천주교에 가입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스물한 개의 지회에 대해서도 알 필요가 없다. 천주교 전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스물한 개의 지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와 같이 개신교 전체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천오백여 개의 종파를 하나하나 알아볼 필요가 없다.

주님의 길은 오직 하나, 곧 빌라델비아이다. 우리는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그러나 교만하지 않도록 조심하라. 빌라델비아의 길을 가는 사람의 가장 큰 시험은 바로 교만이다. 즉 “우리가 당신들보다 낫다. 우리의 진리가 당신들의 진리보다 분명하고, 우리가 당신들보다 더 많이 깨달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교만할 때 즉시 라오디게아로 떨어진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교만이 없다. 주님은 교만한 자를 토하여 내신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활을 베푸시기를! 우리는 결코 교만한 말을 하지 말아야 하며, 이것이 우리에게 경고가 되어야 한다. 사람이 교만한 말을 하지 않으려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 오직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만이 자신을 부요하다고 여기지 않게 된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교만하지 않다. *(위치만 니 전집, 50권, 초신자를 온전케 하는 공과(하), 295-300쪽)*

이기는 이들에게 주신 주님의 약속

주님과 더불어 정찬을 먹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주님은 그분께 문을 연 사람에게 들어간 후에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그분과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다. 헬라어에 따르면 ‘먹는다’는 저녁에 정찬을 먹는다는 것이다. 정찬을 먹는 것은 한 가지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식사의 풍성에 참여하는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먹는 그러한 예표의 성취를 암시하는 것이다(수 5:10-12). 여기서 약속된 정찬은 다만 장래를 위한 것만이 아니라 오늘날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만일 당신이 이기는 이라면 주님께서 왕국 안에서 오실 때 당신은 그분과 함께 먹는 특권을 갖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날 이전에도 당신은 그분께서 당신과 더불어 먹는 것을 누릴 수 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적절하지 않게 빌려 쓰고 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으므로, 만일 죄인들이 문을 열면 그분께서 들어오실 것이라고 그들에게 말해 준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전부이다. 당신은 만일 문을 열면 그리스도께서 당신에게 들어오시어 당신과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하는 메시지를 들어 본 적이 있는가?

만일 우리가 요한계시록 2, 3장에 있는 일곱 서신을 전반적으로 조감해 본다면, 우리가 자라서 변화되어 그분처럼 되도록 그분 자신을 먹고, 그분 자신을 우리의 생명 공급으로 취하는 것을 주님께서 크게 칭찬하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을 생명나무로, 만나로, 하루 중 가장 풍성한 식사로 먹는 문제이다. 주님께서 그분 자신을 먹는 것을 크게 칭찬하실 때 동시에 그분은 네 가지 가르침—발람의 가르침(계 2:14), 니골라당의 가르침(2:15), 이세벨의 가르침(2:20), 사탄의 깊은 것에 대한 가르침(2:24)—을 부인하신다. 만일 당신에게 위조지폐와 진짜 지폐를 분별할 능력이 없다면, 어떤 지폐도 받지 않고 단지 진짜 금만 받는 것이 더 낫다. 마찬가지로, 가르침들은 받아들이지 말고 오직 살아 계신 그리스도만 취하는 편이 더 낫다. 구약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먹는 세 단계인 동산 안의 생명나무, 광야에서의 만나,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본다. 우리는 이러한 세 단계에 있어 왔다. 우리는 동산에서 창조되었다. 그 후 타락으로 인해 우리는 이집트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한다. 구원받은 후 우리는 세상 밖으로 나왔으며, 주님을 만나기 위한 여정에 있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여행을 하는 동안, 우리는 만나가 있는 곳인 광야에 있었다. 세상적인 교회의 이기는 이들에게 감추어진 만나에 대한 약속이 주어짐을 상기하라. 이것은 버가모가 이집트로 되돌아갔음을 가리킨다. 만나는 이집트에서 먹을 수 없었다. 그것은 오직 광야에만 있었으며, 감추어진 만나는 오로지 지성소 안에서만 발견된다. 버가모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 곧 만나가 없는 곳인 이집트에 있는 교회가 되었다. 만일 우리가 만나를 먹고자 한다면 공개된 만나든, 감추어진 만나든, 필히 이집트에서 나와야 한다. 우리는 사탄이 거하며 그의 권좌가 있는 곳으로부터 피하여, 먼저 공개된 만나를 먹을 수 있는 곳인 광야로 들어가야 하며, 그런 다음에는 계속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언약궤 안으로 뛰어들어 감추어진 만나를 먹어야 한다. 마침내 일곱 서신이 우리를 그리스도인 좋은 땅 안으로 이끄는 것 같다. 이곳 좋은 땅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잔치를 누린다. 매해의 명절 동안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잔치를 누리고 하나님은 그들과 더불어 잔치를 누렸다. 아마 이것은 라오디게아의 이기는 이들에게 준 약속의 예표일 것이다. 그분께 문을 여는 사람과 더불어 정찬을 먹겠다는 주님의

약속은 매년의 명절 동안 가나안 좋은 땅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는 사상을 암시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은 생명나무를 먹는 것을 언급하고, 버가모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세상 밖에서 감추어진 만나를 먹는 것을 지적하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보낸 서신은 매년의 명절 때에 가나안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을 누리는 것을 암시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를 지낼 때마다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과 더불어 드시도록 하면서 하나님과 더불어 먹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은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먹고 우리는 그분과 함께 먹으리라고 말씀하신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개관(概觀)이 있다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강조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가르침들을 위해 있지 않고 생명나무요 만나요 좋은 땅의 풍성한 소산물이신 그리스도를 완전히 누리는 것을 위해 있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 위에 앉음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서 주님은 “이기는 이에게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 주님과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는 것은 이기는 이에게 주는 상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가 장차 올 천년왕국에서 주님의 권위에 참여하기 위함이다. 이것은 이기는 이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되어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엄밀히 이야기해서 일곱 서신에 있는 모든 약속들은 장차 올 왕국에 관한 것이다. 해(害)나 고통을 받는 것에 관한 부정적인 단어는 모두 장래 올 왕국 동안에 받을 해(害)를 말하는 것이고, 얻는다거나 누린다는 긍정적인 단어도 왕국 시대 동안의 우리의 특별한 몫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언급한다. 우리는 반드시 이런 약속들을 합당하게 이해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져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 이런 약속들은 오늘날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는 그것들을 지금 먼저 맛볼 수 있다. 이 모든 특별한 몫들을 누리기 위해 왕국 시대 안으로 들어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오늘날 교회생활에서 우리는 왕국을 누릴 특권을 갖고 있다. 교회생활로 인해 주님을 찬양하자.

그 영의 말씀하심

미지근한 교회 안에는 차갑게 하는 지식이 가득하지만 불타오르는 영은 결핍되어 있다. 그 교회에 살아 계신 영의 말씀하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그 교회는 더 이상 죽은 지식이 필요 없다. 만일 그 교회가 모든 죽은 지식을 잊어버리고 살아 계신 영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 타락된 상태에서 구출될 것이다.

이미 보았듯이 일곱 교회는 비단 일곱 시대 안에 있는 교회의 진행 과정을 예언적으로 상징할 뿐 아니라, 교회 역사에서 일곱 종류의 교회들, 곧 초대 교회, 고난받는 교회, 세상적인 교회, 변절(배교)한 교회, 개신 교회, 회복된 교회, 회복되었다가 타락한 교회를 상징하기도 한다. 초대 교회는 고난받는 교회로 계속 이어지며, 고난받는 교회는 세상적인 교회로 변하고, 세상적인 교회는 변절한 교회가 되었다. 따라서 처음 네 교회는 결국 한 종류의 교회, 즉 변절한 교회인 로마 천주교를 낳았다. 그런 다음 변절한 교회에 대한 반응으로 개신 교회가 또 다른 종류의 교회, 곧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교회로 출현했다. 그 뒤를 이어서 회복된 교회가 합당한 교회생활의 완전한 회복으로서 일으켜졌다. 이것은 세 번째 종류의 교회로 간주되어도 좋다. 회복된 교회의 타락에 의해 회복되었지만 타락한 교회가 출현했다. 이것은 네 번째 종류의 교회라고 여겨도 좋을 것이다. 이 모든 네 가지 종류의 교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존속할 것이다. 의심할 바 없이 오직 회복된 교회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완수할 수 있으며, 오직 그 교회만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교회이다. 우리는 반드시 주님께서 선택하신 것을 취해야 한다. (요한계시록 라이프 스타디, 16장, 222-225쪽)